



No. 75

IIIRI Online Series

미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한 승 주

고려대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2020. 9. 28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미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한 승 주 | 고려대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이 마치 미국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주기만 하는 수혜(受惠) 조치라고 믿는 지도자다. 그래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 금액을 몇 배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한국전에 군대를 파견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후 70여 년 가깝게 한국에 군대를 주둔한 것은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고 우리의 방위를 도와주었지만,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한미동맹을 통한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냉전 초기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고 아시아에 전진 기지를 확보하여 일본을 방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군사 방위선을 연결시키는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북핵문제를 자신의 재선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려 했다. 한국과 한미동맹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 칩(bargaining chip)’에 불과했다. 2008년 미

* 본 온라인시리즈는 2020년 9월 23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주관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 간담회”에서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전 외무부 장관)의 기조연설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도 없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데 합의하고, 행동계획(action plan) 없는 막연한 비핵화 합의를 회의의 큰 결실이라고 선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그는 북핵문제나 한국의 방위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의 거래는 이제 정치적 메리트(merit)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아시아의 동맹국 및 유럽의 나토(NATO) 회원국들과도 신의를 저버리고 우호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Quad)’,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각 안보협력체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더해 나토(NATO)식 다자 동맹을 구축할 것처럼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반응을 떠보고 추후 거래용으로 사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미동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인 2016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반(反)트럼프 기조의 현상유지(Status quo anti-Trump)를 택할 것인지 등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쿼드(Quad)나 쿼드-플러스(Quad-plus) 차원의 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관계, 북한문제, 한일관계 등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2016년 이전에도 한미 간에 어느 정도의 파열음은 있었다. 미국 자체의 정책도 진화하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국의 중·장기적인 세계 전략과 아시아 전략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위치와 중요성을 차지할 것인가? 우리의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 합의된 전략이 없고, 한미 관계에 관한 컨센서스(consensus)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약점은 한국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의 집권 정당에 따라 심각한 차이를 보였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대중국 정책,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미국과 손발을 맞추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민주당이 집권해도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사이에 거리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미국 내 정통 보수파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과 개입정책, 북한에 대한 견제와 압력 정책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원래 바이든 후보는 상원의원 시절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파에 속했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미국의 진보파(샌더스, 워렌 등)와 정책적 타협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우(右)클릭’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 대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상황들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앞으로 한국 안보에 대하여 미국의 적극성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학계에서 미군을 해외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초래되는 불필요한 전쟁 개입을 피하고 ‘역외균형자론(Off-shore balancing)’, 즉 미주 대륙 밖에서 유럽, 아시아, 중동의 주요국들 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자는 주장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이 19세기 영국의 ‘찬란한 고립(Splendid isolation, 영원한 동맹 없는 세력균형정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후퇴 가능성을 상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막을 수는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미국의 11월 3일 선거는 차기 미 대통령을 결정할 뿐 아니라, 하원의원 345명과 상원의원 (100명의 3분의 1인) 33명의 거취를 결정한다. 그중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10개가 경쟁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 중 4석을 더 확보하면 상하 양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그동안의 비행(非行) 때문에 탄핵 문제가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미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

저자 소개

한승주 교수는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고문을 맡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무부 장관(1993-94) 및 주미 한국대사(2003-2005)를 역임하였으며,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사이프러스 담당)(1996-97), 유엔 르완다 인종학살 조사위원(1999),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공동의장(2000-2001)을 수행하였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1978-2006)로 재직하였으며,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1995-2003), 고려대 총장서리(2002, 2006-2007)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Korean Diplomacy in an Era of Globalization」 (1995), 「Korea in a Changing World」 (1995), 「Changing Values in Asia」 (1999), 「On the Brink」 (2018), 「Korea Triangles, 1945-2020: Treading a Tightrope」 (2020) 등이 있다. (Email: hansjrok@gmail.com)